

일동화학, 싱글PPM상 대통령표창 수상

중소기업들의 품질혁신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제12회 싱글PPM 품질혁신 전진대회>가 5월3일 상의회관에서 중소기업청 주최, 대한상공회의소 싱글PPM 품질혁신추진본부 주관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싱글PPM 운동은 생산제품 100만개 가운데 불량품을 한자리 숫자로 줄이자는 운동으로 행사에는 싱글PPM 품질혁신운동 추진에 모기업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온 에스엘이 싱글PPM 우수모기업상(대통령 표창)을, 브라운관 전자총 부품 생산기업인 삼비텍을 비롯한 9사가 싱글PPM상(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대회에는 최홍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손경식 싱글PPM 품질혁신추진본부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정부 및 재계인사, 기업인, 근로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티에스피(대표 김종철)는 싱글PPM 품질혁신운동을 통해 고객불량률 92.5% 감소, 원가 19억원 절감, 매출 212% 증대 등의 성과를 달성해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김종철 대표는 납을 사용하지 않는 pb Free 제품생산기술, 수용성 세정제, 원재료 사용을 무려 30% 줄일 수 있는 게이트 락 몰드 금형 등을 개발해 품질향상과 함께 환경보전에도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자동차 램프 및 변속기 레버를 생산하는 에스엘(대표 이충곤)은 현장개선훈련 및 품질교육을 실시하고, 품질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협력기업의 불량률을 대폭 감소시켰다.

또한 브라운관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삼비텍(대표 김종수)은 품질이 곧 경쟁력이라는 경영이념 아래 품질혁신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객불량률 98% 감소, 매출 250% 증대,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400% 신장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삼비텍은 공정의 Fool Proof화, 설비의 무인 자동화, 재료의 국산화 등을 통해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이루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 고객만족을 이루어 낸 공이 인정되어 싱글PPM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밖에 PDP용 화학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일동화학(대표 조근호), 자동차용 도어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평화정공(대표 이명현)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화학저널 2006/05/04>